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 연구

— 드라마 <파친코>의 한국어, 영어 자막을 기반으로 —

동국대학교 윤미선

연구 목적

01 번역학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연구를 살펴본다

- Subtitle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SDH) vs. Closed caption
- SDH의 목표 독자
- 언어간 자막, 언어내 SDH, 언어간 SDH의 차이

02 SDH 제작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파악한다

- SDH의 부호
-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 목표 독자를 고려한 SDH의 관련성 (relevance)

03 목표 독자의 관점에 따른 SDH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 드라마 <파친코>의 특징
- 드라마 <파친코>의 한국어 SDH와 영어 SDH의 차이점
- 한국어와 영어의 SDH 독자에게 어떤 번역이 적절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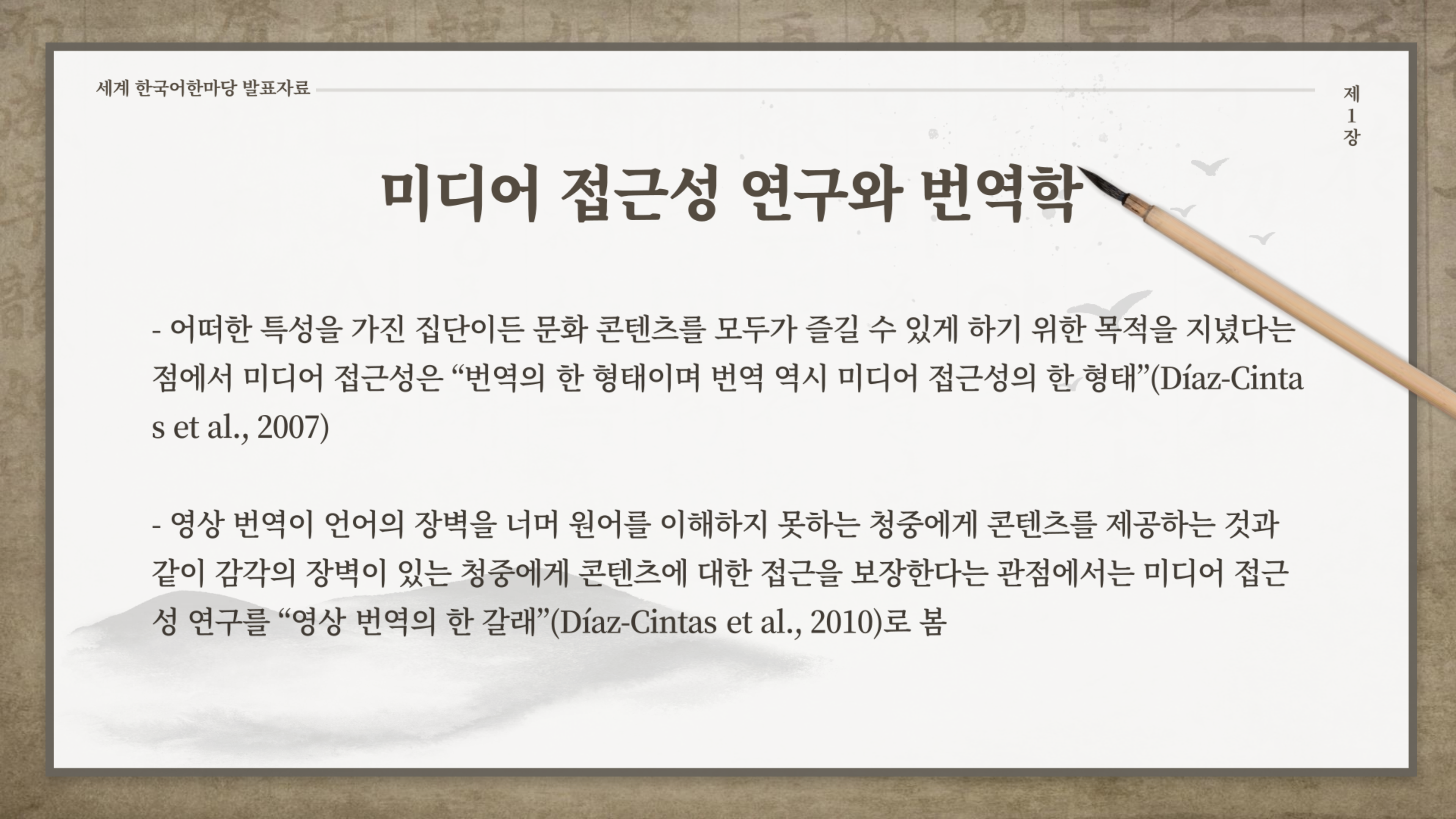
제 1 장

01

번역학에서의 SDH 연구

- SDH vs. CC
- SDH의 목표 독자
- 언어간 자막, 언어내 SDH, 언어간 SDH의 차이

미디어 접근성 연구와 번역학



-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든 문화 콘텐츠를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는 점에서 미디어 접근성은 “번역의 한 형태이며 번역 역시 미디어 접근성의 한 형태”(Díaz-Cintas et al., 2007)
- 영상 번역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청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감각의 장벽이 있는 청중에게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는 미디어 접근성 연구를 “영상 번역의 한 갈래”(Díaz-Cintas et al., 2010)로 봄

용어의 차이

Remael, Reviers and Vandekerckhove 2018

- SDH와 CC -

Subtitle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사용 국가	영국 등 유럽 국가
사용 배경	1970년대 영국의 teletext subtitling 시스템에서 유래함
특징	- 원본의 말을 그대로 전사하지 않고 응축, 삭제 등 편집된 자막이라는 인식이 있음 - 언어간 번역 자막, 언어내 자막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Closed caption (폐쇄 자막)	
사용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사용 배경	'Subtitle'이라는 용어는 언어간 번역 자막에만 국한해서 사용함
특징	- 'Captioning'이라는 용어에는 발화된 말을 그대로(verbatim) 전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다양한 기술 활용이 가능함 - 이들 국가에서는 subtitle을 언어간 번역과 연관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SDH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고 함



SDH의 목표 독자

청각장애의 분류

미국농학교대표자모임의 정의 (CEAD 1975)

- 농 (deaf) 농인은 청력손실로 인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각으로 언어정보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 난청 (hard-of-hearing) 난청인은 보청기를 사용하면 청각으로 언어 정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잔청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 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 청각장애라는 개념은 농과 난청을 모두 포함한다

1980~90년대에는 한국 영화를 볼 때 대사가 잘 안 들려서 힘들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안 들릴 텐데요?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선 동시녹음 마이크 자체가 멀어요. 할리우드에서는 마이크가 엄청 가까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마이크가 먼 이유는 촬영 현장의 상황 때문인가요?

그렇죠. 동시녹음 기사님이 현장에서 파워가 좀 약하거든요. 봄 마이크가 화면에

최은아 음향 편집기사와의 인터뷰 (2020)

한세영 / 기이브로더

비장애인도 원하는 배리어프리 서비스

문일요 기자



입력 2021.08.17.08:55

[Cover Story] OTT 업계에 부는 ‘배리어프리’ 열풍

장애인용 폐쇄형 자막·음성 해설 등
OTT 업계 ‘배리어프리 서비스’ 대세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사용자의 문제로 인식 해야”

“대사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꼭 자막을 켜고 봐요. 대사가 100% 전달되니까 몰입도 더 잘되는 거 같고요. 이젠 자막 없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영 어색해요.”

직장인 이나리(28)씨는 국내 드라마와 오락 예능을 볼 때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ver The Top)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주로 이용한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한국 콘텐츠를 챙겨 보기 위해 국내 OTT인 ‘티빙’ 계정도 가입했다. 하지만 두 플랫폼에서 모두 제

언어간 자막, 언어내 SDH, 언어간 SDH의 차이

	언어간 자막	언어내 SDH	언어간 SDH
시공간적 제약	0	0	0
기호간 중복성	△	0	0
자막 노출시간	6초	9초	9초

- 언어간 SDH는 언어간 자막과 같이 시공간적 제약이 있으며
- 언어내 SDH와 같이 기호간 중복성을 띠고 자막이 좀 더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 다만 언어간 SDH는 언어내 SDH가 직면하기 쉬운 '얼마나 구어를 그대로 옮겼는가'라는 비판으로부터는 자유롭다

제 2 장

02

SDH 제작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

- SDH의 부호
-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 목표 독자를 고려한 SDH의 관련성 (relevance)

영어 SDH의 부호와 기능 (1) Zárate 2021

대문자

큰소리, 강조 표현

이탤릭체

오프스크린 사운드, 음향 효과, 음악, 등장인물의 내적 독백, 외국어, 악센트나 발음, (영화 및 도서 등의) 작품명

인용 부호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직접 인용, 노래 제목
직접 인용 안의 인용

소괄호

속삭임, 등장인물이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었을 때 (방백)

말줄임표

뒤에 있을 때
앞에 있을 때

누군가 말을 잘랐을 때, 휴지(pauses)

문장 중간에 자막이 시작할 때, 대화가 단절된 후 다시 발화를 시작할 때

대시

발화자 식별(speaker identification)

하이픈

말 더듬기, 긴 모음의 표현

영어 SDH의 부호와 기능 (2) Zárte 2021

(?)

의문문에서 빈정댐이나
아이러니 표현

Are you feeling OK (?)

(!)

선언문에서 빈정댐이나
아이러니 표현

That's so generous of you (!)



노래 가사

♪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

SDH의 언어적 요소 Zárte 2021

준어적인 요소 (paralinguistic elements)

자막은 담화 표지 등 구어가 가진 특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거나 지나치게 격식 있게 읽힐 위험이 있음
-> 이러한 자막의 특성은 SDH의 목표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악센트와 발음
- 인토네이션 (강조, 속삭임, 비꼬는 말투 등)
- 휴지와 망설임
- 침묵

SDH의 비언어적 요소 Neves 2009

화자의 식별 (speaker identification)

비청각장애인은 목소리로 화자를 특정할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은 청각 정보에 접근이 제한되므로 화자 식별 정보가 반드시 필요함. 화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각 정보가 늘 제공되지는 않음 (오프스크린 사운드, 내레이션 등)

음향 효과 (sound effect)

음향 효과란 대사나 음악, 준언어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인공적으로 재생산된 모든 사운드를 일컫음. 음향 효과는 스토리텔링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SDH에 포함하는 권고됨 (BBC Subtitle Guidelines 2019)

음악

청각장애인들이 음악 감상을 즐기지 않는다는 오해에서 비롯되어 음악 정보의 SDH 표기가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으나, 청각장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음악 감상의 기억이 남아 있는 독자들에게는 작품 이해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목표 독자를 고려한 SDH의 관련성 (relevance)

Neves 2008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소리인가

SDH에 포함할 소리를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해당 소리가 ST의 서사에서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지 여부임

의미 있는 중복성(redundancy)인가

어떠한 소리가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전달되는 부가적인 소리인지 시각 정보 없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소리인지 파악한 후, 부가적인 소리라면 중복해서 전달하는 것이 독자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함

목표 독자에게 적절(adequate)한가

목표 독자의 국적에 따라 전달해야 할 청각적 정보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제 3 장

03

목표 독자의 관점에 따른 SDH의 관련성

- 드라마 <파친코>의 특징
- 드라마 <파친코>의 한국어 SDH와 영어 SDH의 차이점
- 한국어와 영어의 SDH 독자에게 어떤 번역이 적절한가?

1931 선자



1989 솔로몬



1931 소프라노



1989 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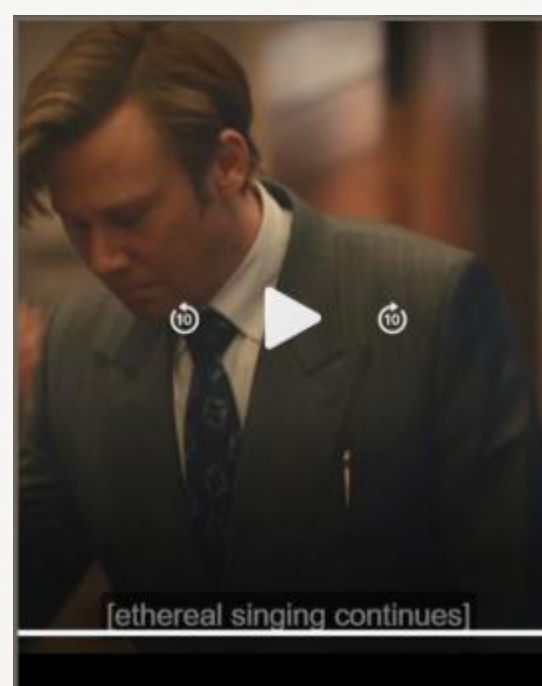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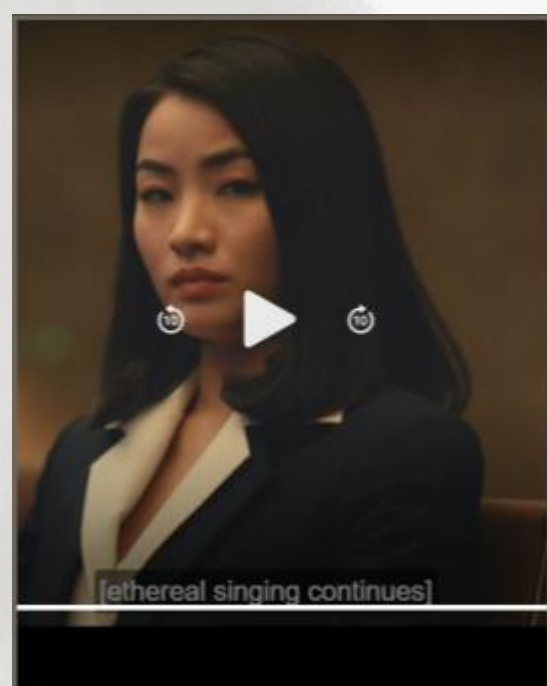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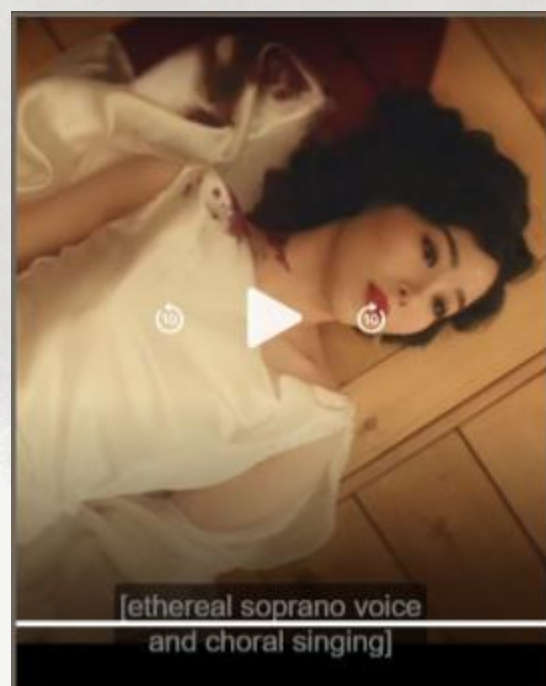
드라마 <파친코>

<파친코>는 왜 60년의 시간을 교차로 보여주는가. 이것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설명이 아니라 공감의 작업이다. 오프닝의 교차편집은 사실상 동시적인 시간을 다루는 감각에 가깝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버텨내야만 했던 이들의 삶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 변한 게 없다.

교차/평행편집으로 작품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에피소드 4회

드라마 <파친코>의 한국어 SDH와 영어 SDH의 차이점 :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가?

평행 편집과 음악의 의미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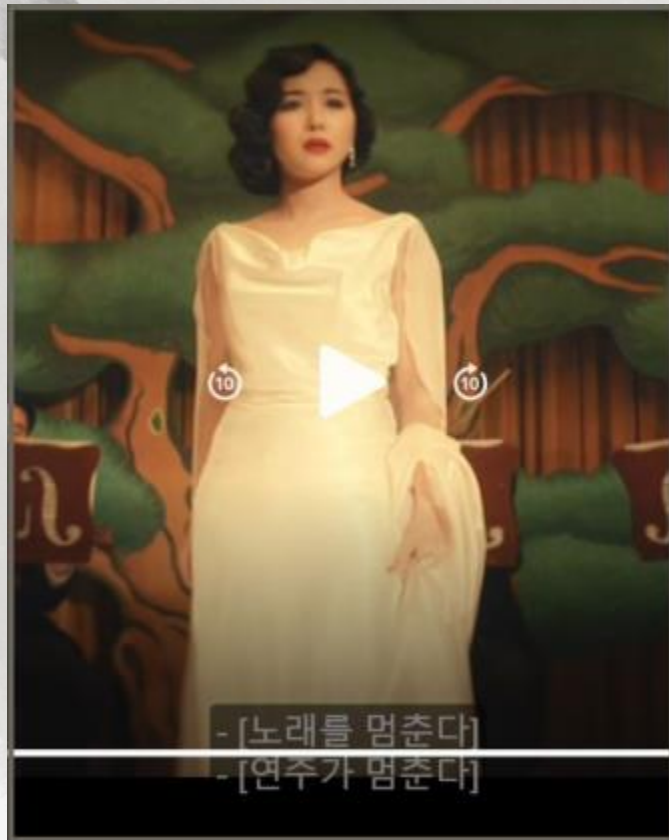
교차되는 화면을 관통하는 음악은 영어 SDH에서 'ethereal sound'로 표기되는 반면 한국어 SDH에는 해당 소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일 조선-한국인인 땅주인은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땅을 팔아야 하고, 가수는 일본인들을 위해 오페라를 불러야 한다. 두 씬이 대칭되는 시점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과거는 여전히 현재라고.

솔로몬은 자신의 할머니인 선자와 나이 든 지주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망령, 트라우마를 드디어 직시한다. “사인하지 마세요.” 솔로몬의 말에 땅주인은 미소를 짓더니 서명란을 비워둔 채 자리를 떠난다. 두 사람이 자신의 공지와 정체성을 선택한 대가는 막대한 부의 포기과 죽음이었다.

여가수의 죽음부터 솔로몬의 난처한 상황까지 가쁜 호흡으로 평행 편집이 이어진다. 이때 60여년의 간극을 매워주는 것은 음악이다. 영어 SDH에서는 이 음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한국어 SDH는 이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

드라마 <파친코>의 한국어 SDH와 영어 SDH의 차이점 : 의미 있는 중복성인가?



(왼쪽) 가수는 헨델의 '올게 하소서'를 부르다가 멈춘 뒤 갑자기 춘향가를 부른다. 갑자기 입을 닫는 가수의 모습에서 음악이 멈추었다는 시각적 정보를 전달 받기는 하나, 무대에서 부르던 음악을 가수가 임의로 중단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한국어 SDH에서는 해당 정보를 전달한다. 반면 영어 SDH에는 해당 준언어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오른쪽) 한국어 SDH는 등장인물이 내는 비언어적 소리(vocal non-verbal sounds)를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홀쩍인다], [한숨쉰다], [쫓 소리를 낸다] 등 시각적으로도 전달되는 청각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어 SDH에서는 이러한 정보 전달이 상대적으로 적다.

드라마 <파친코>의 한국어 SDH와 영어 SDH의 차이점 : 의미 있는 중복성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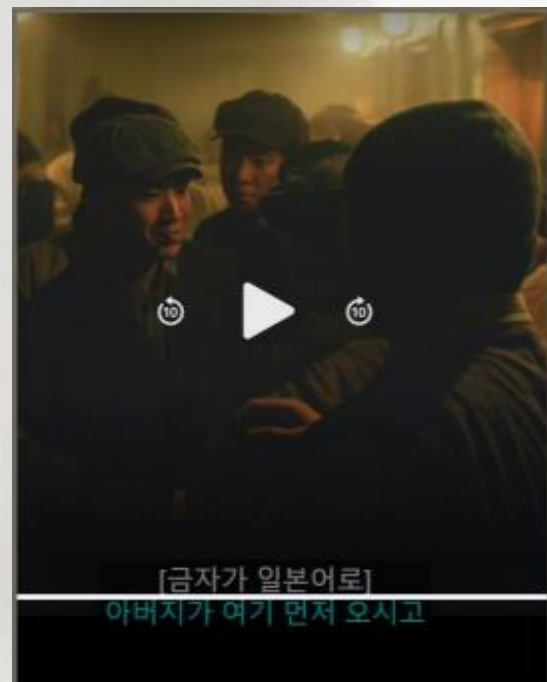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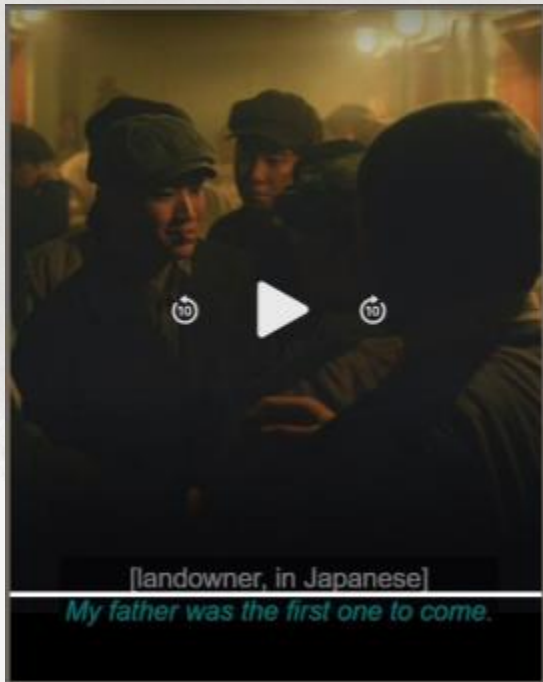


- 쥐요
- [스읍 소리를 낸다] 어허이, 참

보통은 날숨으로 소리를 내는데 상대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멧쩍은 상황에서 내는 이 ‘스읍’ 소리는 들숨으로 낸다. 영어로는 ‘한국인 특유의 치찰음 소리(particular Korean “hiss” sound)’(Brown et al., 2022: 2)라고도 불리는 이 소리는 영어권의 목표 사용자에게는 생소한 소리일 것이다. 해당 소리와 가장 가까운 영어의 준언어적 표현이 ‘hiss’라고 해도 먼 길을 떠나 언제 볼지도 모르는 딸에게 낮은 소리로 화난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hiss’라는 준언어적 표현도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허이, 참”역시 감탄사로 그 표현 자체로는 어떤 의미도 전달하지 않는다. 영어 SDH에서는 이를 ‘됐다! 그만하고 가!(Enough! Stop it. Go!)’로 기재함으로써 준언어적 정보 없이 언어적 정보로만 숨은 의미를 전달한다.

드라마 <파친코>의 한국어 SDH와 영어 SDH의 차이점 : 목표 독자에게 적절한가?

화자 식별에 있어 지칭어의 적절성



한국어 SDH에는 '금자'로
영어 SDH에는 'landowner'로 표기

1989년, 백발이 된 선자의 손자 솔로몬은 자이니치로서 일본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직장에서 인정 받고 싶은 솔로몬은 재일 조선-한국인인 땅주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양도계약서 서명을 반드시 받아내야만 한다. 일본인 중역들이 빼곡한 회의실에서 땅주인은 돌연 솔로몬에게 한국어로 말을 건다. 일본인들에게 바퀴벌레라고 불리며 차별과 멸시를 받은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이 땅주인은 3회에 잠깐 등장하고 4회의 중반부터 1931년의 가수와 대조되며 주제 의식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다만 이 땅주인의 이름 '금자'는 등장인물에 의해 한 번도 호명된 적이 없으며 4회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3화에 잠깐 등장한 이 인물의 이름을 SDH 독자가 기억할까? 오히려 이름이 호명된 '아리모토' 씨가 '변호인' 대신 그 이름으로 표기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국어 화자는 이름(first name)으로 부르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데 SDH에서는 등장인물을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이 적절할까?

[탄성]
일남) 50, 51...

드라마 <파친코>의 한국어 SDH와 영어 SDH의 차이점 : 의미 형성에 기여하면서 목표 독자에게 적절한가?



한국어 SDH에는 '춘향가'라는 곡명이 표기되는 대신 가사가 없고
영어 SDH에는 곡명이 표기되지 않지만 가사가 제공된다

춘향가의 “갈까부다”

갈까부다 갈까부다
님을 따라서 갈까부다.

바람도 수여 넘고, 그릅도 수여 넘는,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
매 다 수여 넘는 동설령 고개라도 임 따라 갈까부다.

가수는 헨델의 '울게 하소서'를 부르다가 멈춘 뒤 갑자기 춘향가를 부른다. 춘향가를 목놓아 부른 뒤 무대에서 칼로 자결하는 이 가수가 부른 마지막 노래는 춘향가의 "갈까부다". 한국어 SDH 독자는 '춘향가'라는 정보만으로 춘향가 내에 어떤 곡인지 알 수 있을까? 이 곡을 부른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가수에게 가사가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가사를 읽고 앞으로 가수에게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드라마 <파친코>의 한국어 SDH와 영어 SDH의 차이점을 통해 SDH의 제작 혹은 번역 과정에서 생각해 볼 지점

음향 효과, 음악 가사의 전달: 서사적 기능 중심

분석 텍스트에서 영어 SDH는 서사적 기능을 하는 음향 효과와 음악 가사를 전달했다. 특히 해당 텍스트가 60여년의 시간을 두고 등장인물들의 상황이 교차되므로 이를 이어 줄 수 있는 음향 효과나 음악에 의존하여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화자 식별 정보와 준언어적 정보의 전달: 객관적 정보 중심

한국어 SDH는 등장인물의 비언어적 표현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오프스크린 사운드 일때 화자 식별 정보를 영어 SDH보다 더 많이 전달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가 SDH 독자에게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닐까?

영어 SDH의 장점인 서사적 기능 중심의 정보 전달과 한국어 SDH의 장점인 객관적 정보 전달을 통합할 수 있다면? 그러나 청각기능 제한으로 인해 한꺼번에 많은 글자를 읽는데 무리가 있는 SDH 독자들에게 이 모든 정보가 너무 과한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Neves, J. (2008). Training in subtitling for the d/Deaf and the hard of hearing.

Neves, J. (2009). Interlingual subtitling for the deaf and hard-of-hearing. In Audiovisual translation (pp. 151-169). Palgrave Macmillan, London.

Remael, A., Reviers, N., & Vandekerckhove, R. (2018). From Translation Studies and audiovisual translation to media accessibility. Audiovisual Translati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95, 65.

Zárate, S. (2021). Captioning and Subtitling for D/deaf and Hard of Hearing Audiences. UCL Press.

<분석 텍스트>

Hugh, S., Ellenberg, M., Springer, L, Kang-Lowe, T., Middleton, R., & Chon K. J. (Executive Producers). (2022). Pachinko [TV Series]. Apple TV+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